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 Effectiveness of the Group-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Social Ability in the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교수 이정숙\*\*

한양대학교 대학원 아동심리치료학과  
석사 유정선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Professor : Lee, Jung-Sook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tudent : Yoo, Jung-Se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 group-counseling program to improve children's social ability. For this study, six children were selected for an experimental group and another six for a control group. They were tested using the 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In addition to a quantitative analysis, a qual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group processes and changes of each child.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socio-drama, group art therapy, and game play therapy whereas the control group did not receive any treatment. In order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intervention, pre-program tests and post-program tests were conduct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social ability was improve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ocial abil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proved to be effective. This program was primarily designed for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주요어(Key Words) :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저소득아동(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사회성(social ability)

### 1. 서론

사회가 분화되고 발달해갈수록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어 가정 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IMF시대를 전후로 해서 최저 생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 수준의 가정이 크게 늘어난 데다 최근 장기화된 불황으로 인한 빈곤율의 증가로 인해 국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전국

135만 명에 이르며, 그 중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의 수는 33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수급 대상에서는 제외된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정을 합하면 전 국민의 10.4%에 해당되는 494만 여명이 저소득층임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저소득 가정 비율은 크게 늘어난다(보건복지부, 2004).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영유아시기의 건강 문제부터 아동기의 행동·정서적 문제, 청소년기의 학업에 이르기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를 보인다(민하영·권기남, 2004; 신명호, 2004; 장혜자, 2000; 이은주, 이재연, 1995; Duncan & Brooks-Gunn, 2000)는 각종 연구결과들은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처가 절

\* 이 연구는 노원구청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유아정서지원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주 저 자 : 이정숙 (E-mail : ljs1994@hanyang.ac.kr)

실히 요구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었으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빈곤하지 않은 아동들보다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즉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출생시 몸무게가 낮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으며,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부적절한 양육 등과 같은 생물학적, 환경적 위험요소에 노출되어 결국 여러 가지 정서 및 행동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어주경·정문자, 1998; Posner & Vandell 1994; Garnezy, 1993; Horning, & Gordon, 1992). 즉 빈곤아동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 의료적 어려움, 풍부한 문화경험의 부족, 자존감의 상실, 사회환경으로부터의 위축감과 같은 부정적 경험들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어려움을 지속화시키고 빈곤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거듭되면서 저소득층의 아동을 환경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하는 위험요인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환경에서도 아동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적용한 예방활동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지원과 함께 병행될 때 가장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면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진다(Miller & Macintosh, 1991; Dumont & Provost, 1999; Vidourek, 2002; 정안숙, 2003).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가 좋을수록, 부모의 자녀 양육 스타일이 신뢰로울수록, 아동의 자존감과 지능이 높을수록, 그리고 아동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능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아동이 성공적으로 적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희수, 2004; Garnezy, 1993; Luthar, 1994; Luthar & Zigler, 2001).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방법으로 집단활동을 이용한 저소득층 아동대상지원 프로그램의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왔으며(조은희, 1989; 유민화, 1996; 권효정, 2001; 이현·이정숙, 2003; Schwartz, 1986; Shoemaker, 1991), 저소득가정의 경우 대개 부모의 적극적인 양육활동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의 개인내적 보호요인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 개인내적 보호요인으로 가장 중요시되는 자존감과 사회성증진을 목표로 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며 자존감의 경우 대부분의 8-10회기로 구성된 단기프로그램에 의한 향상을 공통적으로 나타냈으나(유민화, 1996; 이승희, 1998; 권효정, 2001; 신수정·성영혜, 2003), 사회성의 경우 향상되거나(김주영, 2003), 일부 하위요인만 향상되거나(권효정, 2001), 영향을 주지 않는다(유민화, 1996)와 같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선행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한하듯이 기존의 사회성증진 프로그램이 대상 아동들의 수준에 비해 어렵고, 프로그램 효과검증을 위해 단기로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상기의 문제점을 보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내적 보호요인인 사회성을 증진시켜 건강한 심리사회적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사회성에 변화가 있는가?

(1-1)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총체적 사회성에 변화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사회성의 하위변인에 변화가 있는가?

(2-1)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협동성에 변화가 있는가?

(2-2)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변화가 있는가?

(2-3)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주장성에 변화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발달

정법모(1971)는 사회성이란 사회활동, 집단생활을 즐기며 동무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의견이 잘 맞으며 충동이 적은 특성으로서, 반대로 사회상태를 기피하고 수줍어하고 고립을 일삼는 비사회성과 대조가 된다고 하였다.

또한 민영순은 사회성이란 것은 사회관계의 의식을 말하며,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성질이라고 하였다. 즉 다른 사람들과 사귄 수 있는 개체의 능력 또는 개체의 사회적 적응성, 대인관계의 원만성이라고 할 수 있다(민영순, 1976). 이렇듯 사회성을 설명하다보면 가장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는 개성을 가진 여러 인격체가 사회조직 내에서 상호 접근하여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기저를 이루고 그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며 상대방을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 대하여 서로의 개성을 살려 성장, 발달해 나가는 것이다(이두엽, 1995).

이상의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성이란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이 적절히 반응하고, 타인의 반응을 적절히 받아들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맺는 능력을 의미한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것보다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은 항상 가정이 경제적인 긴장상태에 놓여있으므로 심리적 불안상태가 인성구조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적응을 어렵게 하여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백정재, 1996). 또한 저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사회적 측면의 지지를 해줄만한 능력이나 동기가 결여되어 아동들에게 충분한 지도감독이나 역할모델을 제공하지 못 하게 되며(Pearl, 1971), 경제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부모가 겪게 되는 디스트레스와 갈등이 아동으로 하여금 우울을 경험하게 하고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위축감을 느끼게 되어 아동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Conger외, 1994; Whitbeck 외, 1991).

또한 이러한 환경들은 아동들이 사고 위협에 방치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문화적 소외, 정서발달의 장애 등과 함께 가난으로 인한 정신적인 열등감, 패배의식을 갖게 하며, 사회적 측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사회성 결여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러한 사회성의 결여는 학습상의 문제와 더불어 싸움, 비행과 같은 정서·행동상의 문제를 야기시키며, 사회적인 관계에서 소외됨으로 인하여 심리적인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조운희, 1989).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은 유아기에서 아동기로 넘어오면서 그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 사회적 환경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식적인 집단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면서 발달되는 사회적 경험과 사회적 능력은 전 생애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준다. 특히 6세에 접어들면서 아동들은 또래집단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며 대인간 친밀감의 욕구가 특히 높다(이춘재 외, 1990). 따라서 성인들 사이에서보다는 다른 아동들과의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며 친구들에게서 우정과 친밀감을 충족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동의 사회화에서 집단 내에서의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또래집단은 자아개념의 발달과 자존감의 형성을 위한 중요한 활동무대이며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또래집단은 아동들로 하여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치를 선택하도록 해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배우게 한다. 이렇듯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상호작용능력은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에 보다 넓은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아동이 인식하는 저소득이라는 환경은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접하는 위험요인을 줄이고 내적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것은 부모나 주위환경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에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며, 정규교육 외에도 외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 2. 집단활동과 사회성발달

집단활동의 경험은 아동의 보다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실

시된다. 아동은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집단경험을 하고 소속집단의 범위를 확대해 간다. 아동의 생활권 확대에 따른 이러한 집단과정 속에서 상호작용을 겪으면서 개인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며 인격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면서 사회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해간다. 그러나 건전한 발달을 저해받거나 어떠한 손상된 문제환경에서 양육을 받은 경우 이들을 소집단활동의 상호작용을 거친 집단경험을 통해 자아발전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다(김준경, 정여주, 2000).

지금까지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집단치료놀이, 상호작용놀이, 미술치료, 사회극 기법을 이용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유민화, 1996; 최외선·전미향, 1996; 안양숙, 1997; 전미향, 1997; 김소연, 2000; 송호영, 2000; 김재원, 2003; 신수정·성영혜, 2003; 김주영, 2003) 최근 들어서는 여러 기법의 장점들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동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이현·이정숙, 2003) 그러나 이 프로그램 역시 학령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학령전기나 초기의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인지적인 발달수준의 차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저하되므로(유민화, 1996, 이현·이정숙, 2003) 보다 어린 연령의 아동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의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증진에 효과적인 소시오드라마와 집단미술치료기법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학령전기 6세의 아동이 집단활동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임놀이치료기법을 접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 1) 사회극(소시오드라마)

사회극이란 자신의 문제를 단순하게 말로 표현하는 대신 자발적인 행동으로 그 문제의 상황을 표현하는 즉흥극이라 정의되는 정신치료극의 일종이다(Moreno, 1974). 사회극의 바탕은 자발성과 창조성의 이론이며 대본이나 이야기, 줄거리가 없이 즉흥극이란 점과 과정,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정신치료극과 동일하나 정신치료극이 한 인간의 정서적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는 반면, 사회극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이 문제를 다룬다는(김유광, 1996) 차이가 있다. 사회극은 개인보다는 단체적인 카타르시스를 추구하고 개인의 자발성을 발전시키며 인간관계의 화해를 가져오는 원천이 된다(이정숙·김희경, 1995)

사회극은 주인공에게는 개인 정신치료의 성격을 띄면서 동시에 집단원들에게는 상화관계를 맺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속의 한 개인으로서 사회적 기술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김유광, 1984).

### 2) 집단미술치료

미술치료는 개인을 객관화한 하나의 치료형태이며, 만들어진 하나의 미술작품은 한 개인의 자기 확장이며 사고와 감정의 명

백한 투사이다. 현실과 공상, 의식과 무의식을 융합할 수 있는 미술을 통해 심리를 치료하는 것이다(한국미술치료학회, 1994).

최근의 경향은 분석적 개인 미술치료보다는 집단적 미술치료가 많이 시행되고 있다(김윤정, 1996). 집단미술치료는 미술매체를 통합으로써 언어적 표현을 쉽게 해주고 잠재적 긴장이나 불안을 완화시켜주며 특히 집단원들은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집단구성원에게 집단의 한 일원으로서의 개인적 체험을 하게하고 치료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참여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자기통찰을 하도록 한다(전미향, 1997).

미술치료는 성인 뿐 아니라 아동상담에서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표현방식들과 결합하여 그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데(Schaefer & O'Conner, 1982), 최근 들어 사회적과 점목시킨 다각적 접근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나오고 있다(명신영, 1999; 전숙영·이정숙, 1999; 한국어린이육영회 치료교육연구소, 2003; 이현·이정숙, 2003).

### 3) 게임놀이치료

게임은 집단원에게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신체발달, 인지와 언어발달, 사회정서발달에도 효과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게임은 각 게임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성격, 능력, 내재된 문제들 사이의 관계를 투사하는 매체로서 작용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는 아동은 자신과 타인이 다르다는 점을 깨닫게 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이영미, 2001).

게임놀이치료는 6세-12세의 아동에게 가장 적절하며, 게임의 맥락 내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은 새로운 정보, 역할과 행동을 하는 경험, 게임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적응, 선택적인 규준을 획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이승희, 1998). 따라서 아동은 게임을 활용한 집단활동을 통해 무의식적 갈등을 게임 안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공격성과 경쟁을 다루는 기회를 얻게 되며, 집단내의 개인과 전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연령에 맞는 통찰력을 발달시키고 정서적인 충동을 승화하는 한편 문제해결훈련을 하고, 행동수정체계를 이용하면서 정서와 행동을 연결하여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송영혜·박진희, 2000).

## I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사회성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험적 처치로 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실험집단과 참여하지 않는 통제집단 간의 사회성점수를 비교하는 사전 사후 통제 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를 채택하였으며 그 모형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 1> 실험설계모형

	사 전		사 후
실험 집단	O <sub>1</sub>	X	O <sub>2</sub>
통제 집단	O <sub>3</sub>		O <sub>4</sub>

X : 사회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  
 O<sub>1</sub> : 실험집단 사전검사      O<sub>2</sub> : 실험집단 사후검사  
 O<sub>3</sub> : 통제집단 사전검사      O<sub>4</sub> : 통제집단 사후검사  
 2. 연구대상과 측정도구

#### 1) 연구대상

본 프로그램은 서울시 N구청 복지과로부터 N구내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유사한 조건의 유치원 2곳을 추천받아, 7세반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 사회적 기술점수를 낮게 획득한 아동들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각각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 2) 평가도구

취학 전 아동의 사회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도구로 Grasham과 Elliot(1990; 서미옥, 2004; 재인용)이 개발한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평정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level, SSRS)를 서미옥(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교사평정용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응답방식은 문항내용이 아동의 태도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0점에서 1점까지 주도록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서미옥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계수는 .79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각 하위요인과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표2>와 같다.

<표 2> SSRS의 하위요인 및 신뢰도 계수

SSRS의 하 위 요 인	신뢰도 계수
사회적 기술	.79
협동성	.79
자기조절	.79
주장성	.78

#### 3) 연구절차

프로그램 실시는 2004년 8월 2주부터 12월 2주까지 1회의 사전면접과 90분씩 14회의 집단상담으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은 선행연구(명신영, 1999; 전숙영·이정숙, 1999; 이현·이정숙, 2003)들을 바탕으로 구성하여 집단상담 지도훈련을 받은 아동심리치료전공의 심리치료사와 보조진행자가 진행했으며, 아동들에게 실시한 사회성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은 <표3>과 같다.

<표 3> 사회성증진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내용

회기목표	회기	활 동 내 용			목표 및 기대효과
		준비단계	진행단계	공유단계	
프로그램 흥미유발 및 집단응집력 향상	1	· 프로그램 소개	· 이름표 만들어 자기소개 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 각자 불리고 싶은 별칭을 생각하여 이름표에 쓴다. ② 별칭의 의미를 집단원들에게 발표한다. ③ 들썩 짝을 지어 이야기를 한뒤 서로를 집단원들에게 소개시켜준다. · 규칙정하기 : 집단상담에서 함께 지킬 규칙을 정한다.	앞으로의 기대말하기	·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유도 · 긴장해소와 친밀감 형성
	2	· 올챙이와 개구리	· 자신을 표현하는 팔라쥬 ① 나를 표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제로 팔라쥬를 만들어본다. ② 자신의 작품을 집단원들에게 발표한다.	느낌 말하기	· 자신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3	· 동작 따라하기	· 신체조각(봄, 여름, 가을, 겨울) ① 두 조로 나누어 각조별로 무대에 나와서 사계절을 신체를 이용해 표현해본다. ② 모든 조원이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진행한다.	느낌 말하기	· 신체움직임을 통한 무대적응 · 신체의 느낌이해와 타인과의 공감
Self-image 자각 및 긍정적 Self-image 확립	4	· 립보	· 손, 발바닥 본뜨기 ① 자신의 손과 발을 본을 뜬 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꾸며본다. ② 자신의 작품을 집단원들에게 발표한다.	느낌 말하기	· 또 다른 자신의 이미지 확인· 자신에 대한 구체적 표현
	5	· 과자 따먹기	· 가족을 동물로 표현하기 ① 자신의 가족구성원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동물을 흉내내 본다. ② 역할극으로 전환한다.	느낌 말하기	· 가족 내 자신의 위치와 가족에 대한 이해
	6	· 풍선릴레이	· 도깨비나라 1 ① 도깨비 나라로 간 후 도깨비 나라에서는 정신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사며 대신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나 너무 징이 되어 버리고 싶은 것을 판다. ② 바라던 욕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느낌 말하기	· 자신의 내적인 정서 및 욕구 이해
타인의 감정이해 및 사회적 상황 대처	7	· 의자왕	· FDT게임(감정게임) ① 감정, 행동, 생각카드를 놓고 주사위를 굴러 말을 움직여 칸에 도착하면 해당카드를 뒤집어서 지시에 따른다. ② 행동카드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재미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③ 감정, 생각카드에서 나온 응답에 대해 집단원들의 공감 여부를 묻고 나온 개수만큼 칩을 지급한다. ④ 가장 많은 칩을 획득한 아동이 승리한다.	느낌 말하기	·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공감의 기회제공 · 규칙을 지킴으로써 욕구조절기회
	8	· 양파링 빨대로 전달	· 미이라 만들기 ① 휴지로 아동들의 몸을 모두 감아 미이라를 만든다. ② 왜 미이라가 되었는지, 하지못한 말이 있는지, 돌아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등을 질문하고 기회를 준다. ③ 하나, 둘, 셋을 외치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휴지를 헝겊 찢고 나오게 한다.	느낌 말하기	· 지지원으로서의 가족 인식 · 중요한 사람에 대한 감정표현
	9	· 우리 집에 왜왔니	· 도깨비나라 2 ① 6회기의 도깨비나라에서 시간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바꾸거나 환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느낌 말하기	· 자신의 내적인 정서 이해

회기목표	회기	활 동 내 용			목표 및 기대효과
		준비단계	진행단계	공유단계	
또래관계 증진	10	· 손 만져 째찾기	· 기쁜 일/슬픈 일 그리기 ①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중 가장 기억에 남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그리게 한다. ② 기뻐던 일은 색종이에, 기분나빴던 일은 풍선에 그린 후 발표한다. ③ 색종이는 한 곳에 모아 이야기를 나누고, 풍선은 다함께 터뜨린다.	느낌 말하기	· 자신과 주변에 대한 감정표현 · 다른 사람과의 경험 공유
	11	· 신문지 접어올라가기	· 마을 만들기(내가 살고 싶은 곳) ① 전지를 바닥에 붙이고 다 함께 색깔칠흙과 색연필을 이용하여 자신이 살고 싶은 마을을 꾸며본다. ② 완성되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은 어떤 곳인지 모두 이야기하고 마을의 이름을 다함께 붙인다.	느낌 말하기	· 희망하는 가족이미지 및 이상향에 대한 구체적 표현 · 타인에 대한 이해
	12	· 텀블링 몽키	· 소원이루기 역할극 ① 두 명씩 짝을 지어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② 무대에서 직접 주변 인물을 배치하고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극으로 연출한다.	느낌 말하기	· 자신의 감정확인 및 타인과의 공감 · 자신의 소망인식과 구체적인 해결책 제안
	13	· 엇갈린 손 풀기	· 미래상황 역할극 ① 바로 직후나 먼 미래의 원하는 시점으로 가서 자신의 미래를 연기해본다. ② 느낀 점을 발표한다.	느낌 말하기	· 주요인물에 대한 상징적 표현 · 자기통찰과 이상적 자아상 상상
종결	14		· 칭찬하기 ① 의자를 돌려놓고 집단원을 등지고 앉으면 그 사람에게 대한 칭찬과 고마웠던 일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한다. ② 이야기를 다 듣고 집단원들에게 하고 싶은 대답을 한다.	종결파티	· 긍정적인 자아를 느끼는 기회 · 집단의 응집력경험

4. 분석방법

자료분석 방법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t-검증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사후점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맨-휘트니의 U 검증법(Mann-Whitney U Test)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에서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후에 점수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의 여부는 동일표본에 대한 비교이므로 t 검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실험집단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간에 점수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 차이가 통제집단에서의 사전 사후 점수차이와 비교하여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례수의 제한을 덜 받는 맨-휘트니의 U 검증법을 사용하였다.

IV. 결과분석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표4>와 같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 비교

구 분		실험집단	통제집단
남		4	4
여		2	2
소득 수준	100만원 이하	3	2
	100-200만원	3	4
부	연령	20대	3
		30대	3
	교육 수준	중졸이하	1
		고졸	4
		대졸	1
직업	판매직	2	
	운수업	1	
	노동직 미상	1 2	
모	연령	20대	3
		30대	3
	교육 수준	중졸이하	1
		고졸	5
		대졸	-
	직업	판매직	2
주부		3	
미상		1	
계		5	5

<표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 중 실험집단아동의 남녀 구성비율은 각 4 : 2로 동일했으며, 월 소득수준은 실험집단은 평균 118만원, 통제집단은 평균 122 만원으로 보건복지부(2004)가 제시한 월 수입이 최저생계비인 120만원 미만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최저생계비의 120%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저소득층에 속했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연구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척도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척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동질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적 기술 사전검사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임이 검증되었다.

<표5>에서 전체 사회적기술척도 점수를 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성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데 실험집단의 평균이 32.3 점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이 32.49로 통제집단이 약간 높으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점수비교

척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t값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회성	32.3	4.63	32.49	3.31	.18

\*p< .05

3. 사회성 증진 효과분석

사회성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6>에서 실험집단의 전체 사회적 기술 사전검사의 평균은 32.3, 사후검사의 평균은 39.16으로 사후검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전체 사회적 기술 사전검사의 평균은 32.49에서 30.50으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6>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의 전체 사회적 기술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차이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차이에 대한 t검증에 의해 본 프로그램은 참여한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검사 점수의비교만으로는 실험적 개입의 효과를 확실히 확인하기가 어려우므로 비모수통계기법인 맨-휘트니 검중에 의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차이를 가지고 분석해보았다. 사회적 기술점수의 사전 사후 점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후 점수차에 대한 맨-휘트니 검증을 실시한 결과이다. 전체 사회적 기술은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표6>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로써 사회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1) 하위요인 협동성 증진 효과분석

사회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협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6>에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이 10.2 사후검사의 평균이 12.1로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의 평균이 10.6이고, 사후검사의 평균이 10.1로 낮아졌다. 이는 표<7>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후 점수차에 대한 맨-휘트니 검증을 실시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2) 하위요인 자기조절 증진 효과분석

사회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결과를 비교하면 <표6>에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이 9.02, 사후검사의 평균이 9.10으로 사후검사의 점수가 사전검사에 비해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하위요인 주장성 증진 효과분석

사회성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주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비교한 결과, <표6>에서 실험집단의 사전검사 점수의 평균이 11.37, 사후검사의 평균이 13.29로 사후검사의 점수가 사전검사에 비해 높아졌다. 반면에 통제집단의 경우는 사전검사의 평균이 11.30 이고, 사후검사의 평균이 10.48로 약간 낮아졌다.

실험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표6>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집단의 주장성점수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점수차이는 p<.05수준에서 양 검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표7>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전후 점수차에 대한 맨-휘트니 검증을 실시한 결과와도 일치한다.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비교

집 단	척 도	사 전		사 후		t 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n=5)	사회적기술 총점수	32.3	4.63	39.16	6.99	-3.272*
	협동성	10.2	2.61	12.1	4.69	-2.83*
	자기조절	9.02	6.23	9.10	7.92	-1.92
	주장성	11.37	5.63	13.29	6.29	-3.879*
통제집단 (n=6)	사회적기술 총점수	32.49	3.31	30.50	3.44	1.695
	협동성	10.6	1.08	10.1	3.26	1.15
	자기조절	9.42	2.89	9.03	4.06	.98
	주장성	11.30	4.69	10.48	5.20	.350

\*p< .05

<표 7> 사전 사후 점수차에 대한 맨-휘트니 검증(Mann-Whitney U Test)결과

척 도	실험집단		통제집단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사회적기술 총점수	6.86	4.17	1.99	3.82	.045*
협동성	1.9	3.83	0.5	5.14	.017*
자기조절	0.08	4.83	0.39	3.69	.200
주장성	1.92	4.17	0.81	4.26	.049*

\*p< .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성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저소득층 아동들의 사회성이라는 내적 보호요소를 증진시킴으로써 정서문제와 행동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이후의 학교생활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방과 후에 이루어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7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령전기 아동의 인지적 수준에 맞는 게임치료기법을 도입하였으며 프로그램의 기간을 또한 연장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아동들의 사회적 기술능력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이로써 아동들의 사회성이 증진되어 이후의 심리사회적 적응력을 증진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기술능력의 하위요인 중 협동성과 주장성은 유의하게 높아졌으나 자기조절능력은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본 프로그램에서의 집단경험을 통해 또래집단의 규

율을 준수하고 집단생활을 영위해나가는 능력과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등의 외부통제적인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자신의 욕구와 부정적 행동을 통제하는 내부통제적인 능력의 향상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아동의 개인내적 보호요인인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에서 학업성적에 영향을 받는 유능감과 관련된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단기 프로그램에 의한 향상을 보이지만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보다 근본적인 내부통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증가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정은미·강기정, 2003)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실시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학령전기 및 초기의 아동에게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반감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프로그램에 게임치료를 접목시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소득가정의 수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저소득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도되었다. 학령전기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은 이후 학령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의 건강한 삶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으며 이 시기의 적절한 개입은 이후의 어떤 상담보다도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 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이후의 문제를 예방하는 데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접수일 : 2005년 03월 15일
- 심사일 : 2005년 03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05년 05월 11일

#### 【참 고 문 헌】

- 권효정(2001). 저소득층 아동의 집단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연(2000). 사회극이 아동의 외로움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광(1984). Psychodrama: J. L. Moreno기법을 중심으로. *정신의학보*, 8(3), 70-85.
- 김유광(1996). 싸이코드라마의 준비작업. *임상예술학회지*, 2, 37-46.
- 김윤정(1996).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미술활동중심 집단상담효과.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재원(2003). 학급중심 집단미술치료가 아동의 사회성 및 학급응집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영(2003). 놀이를 활용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춘경·정여주(2000). 상호작용놀이를 통한 집단상담. 학지사.
- 김희수(2004). 저소득 가정 아동의 비행행동에 대한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명신영(1999). 집단정신치료에 따른 어머니의 가족지각, 부모효능감, 양육스트레스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집단미술치료와 집단정신치료를 통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순(1976). 교육심리학 신강. 문음사.
- 민하영·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102.
- 백정재(1996).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행동.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4). 빈곤층 및 차상위계층 실태조사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서. 보건복지부.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 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24(2), 223-232.
- 송영혜·박진희(2000). 게임놀이치료가 시설아동의 적응행동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4(1), 103-117.
- 송호영(2000). 방과 후 아동지도 집단프로그램이 아동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 불교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호(2004). 교육과 빈곤탈출: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저하 현상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9호, 29-38.
- 신수정·성영혜(2003). 집단치료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증진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 17(1), 29-60.
- 안양숙(1997). 역할놀이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정문자(1998).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2), 21-40.
- 유민화(1996). 집단사회사업실천이 방과 후 탁아아동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두염(1995). 인간관계 수련활동이 아동의 성취동기 및 대인관계 지향에 미치는 효과. 순천향대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희(1998). 자존감 낮은 아동의 구조화된 집단게임놀이치료 효과. *놀이치료연구*, 2(2), 87-109.
- 이영미(2001). 게임놀이치료의 이론적 고찰과 적용사례. *놀이치료연구*, 4(1), 71-82.
- 이은주·이재연(1995). 빈곤층 아동의 또래역량. *아동학회지*, 17(2), 195-206.
- 이정숙·김희경(1995). 심리요법의 기술. 서울: 교문사.
- 이춘재 외(1990).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정성출판부.
- 이현·이정숙(2003). 집단활동프로그램이 어머니·자녀의 자존감과 우울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34, 215-241.
- 장혜자(2000). 빈곤한 아동의 현황 및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9(3), 257-270.
- 전미향(1997). 집단미술치료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숙영·이정숙(1999). 애착문제를 갖는 아동의 개인놀이치료 및 집단역할놀이에 대한 사례연구. *놀이치료학회지*, 2, 59-74.
- 정법모(1971). *인성검사요강*-초등학교 고학년용. 코리안 테스트 센터.
- 정인숙(2003). 가족 및 또래 관계가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우울 및 반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미·강기정(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71-187.
- 조운희(1989). 집단경험이 빈곤결손가정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전미향(1996). 미술기법을 이용한 집단상담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와 동적가족화 반응특성. *한국미술치료학회*, 3(2), 89-120.
- 한국미술치료학회(1994). *미술치료연구*. 한국미술치료학회.
- 한국어린이육영회 치료교육연구소(2003). 부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집단치료 심포지움. 한국어린이육영회부설 치료교육연구소.
- Conger, R. D., Ge, X., Elder, G. H. Jr., Lorenz, F. O. & Simons, R. L.(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Duncan, G. J. & Brooks-Gunn.(2000).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2, 296-318.
- Garnezy, N.(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127-136.
- Horning, L. & Gordon, A.(1992). Resilienc in preschoolers and toddlers from low-income famil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29(3), 155-159.
- Luthar, S. S.(1994).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6.
- Luthar, S. S. & Zigler, E.(2001). Vulnerability and competence: A review of research on resilience in childhood.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1(1), 6-22.
- Miller & Macintosh(1991).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ontrol and young internalized and externalize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5, 1120-1136.
- Moreno, Z. T., A Survey Psychodramatic Technique(1974). In I.A. Greenberg(Ed). *Psychodrama : Theory and Therapy*, 85-100. New York : A Conder Book.
- Pearl. L.(1971). Poverty Strategy for Reduction.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 2, 992.
- Posner, J. & Vandell, D.(1994). Low income children after school care: Are there beneficial effects of after school programs?. *Child Development*, 65(2), 440-456.
- Pumont & Provost(1999). *Emotional Development*. New York : Wiley.
- Schaefer & O'Conner(1982). *Handbook of play therapy*. John Wiley & Sons, Inc.
- Schwartz(1986). The outcome of psychotherapy with children. *Psychological Bulletin*, 98, 388-400.
- Shoemaker(1991).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565-574.
- Vidourek(2002). *Theoretical Issue in Behavior Therapy*, New York: Academic Press.
- Whitbeck, L. B., Simons, R. L., Conger, R. D., Lorenz, F. O., Huck, S. & Elder, G. H. Jr(1991). Family economic hardship, parental suport, and adolescent self-esteem.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4(4), 353-363.